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292 | OCTOBER 2021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1년 10월호 / 통권 292호

발행일 2021년 10월 1일

발행인 염수정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1©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292 | OCTOBER 2021

Editor's Note	4
특집	6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함께 읽는 성경	12 베드로의 둘째 서간
전례와 생활	18 구경꾼이 아닌 전례 거행의 주인 22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News & Views	25 후원방법 및 소식
교회의 가르침	26 기도학교 32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22
신앙과 삶	36 일상에서의 감사
듣다 읽다 보다	40 고전음악을 듣다 46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2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56 티나씨의 티비보기 58 성미술 이야기



THE COVER

서울대교구 대신학교 內 사목관에 있는 김대건 신부님 기념 메달



지난 한 달 동안 잘 계셨는지요?

많은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혼쾌할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버티며 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세상의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저희 직장 사목팀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거의 2년 동안 만나 뵈지 못하는 교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유행가 제목이 요즘 우리 마음을 참 절실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제 마음이 그러한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한지요?

가요 이야기를 했으니,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인의 ‘오르막길’이란 노래입니다. 그 곡의 가사 일부입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중략)...// 한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아득한 저 끝은 보지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후략)...” 어려움을 이겨내고 올라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곡입니다.

물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한 걸음이 아니라 열 걸음, 아니 수백 걸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력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절망에서 출발하지 않고도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실패를 거듭한다 해도,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해도, 일이 애초에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돌아간다 해도, 다시 기운을 내고 용기를 내야 한다.”(빈센트 반 고흐, <반 고흐, 영혼의 편지>, 신성림 옮김, 예담, p.82)라는 빈센트 반 고흐의 말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거듭되는 실패로 퇴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지향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지향 그 자체가 용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대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님과 그의 연결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노우식 신부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본부장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땅의 증거자

김대건(7): 체포와 순교, 신덕(信德)과 용덕(勇德)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_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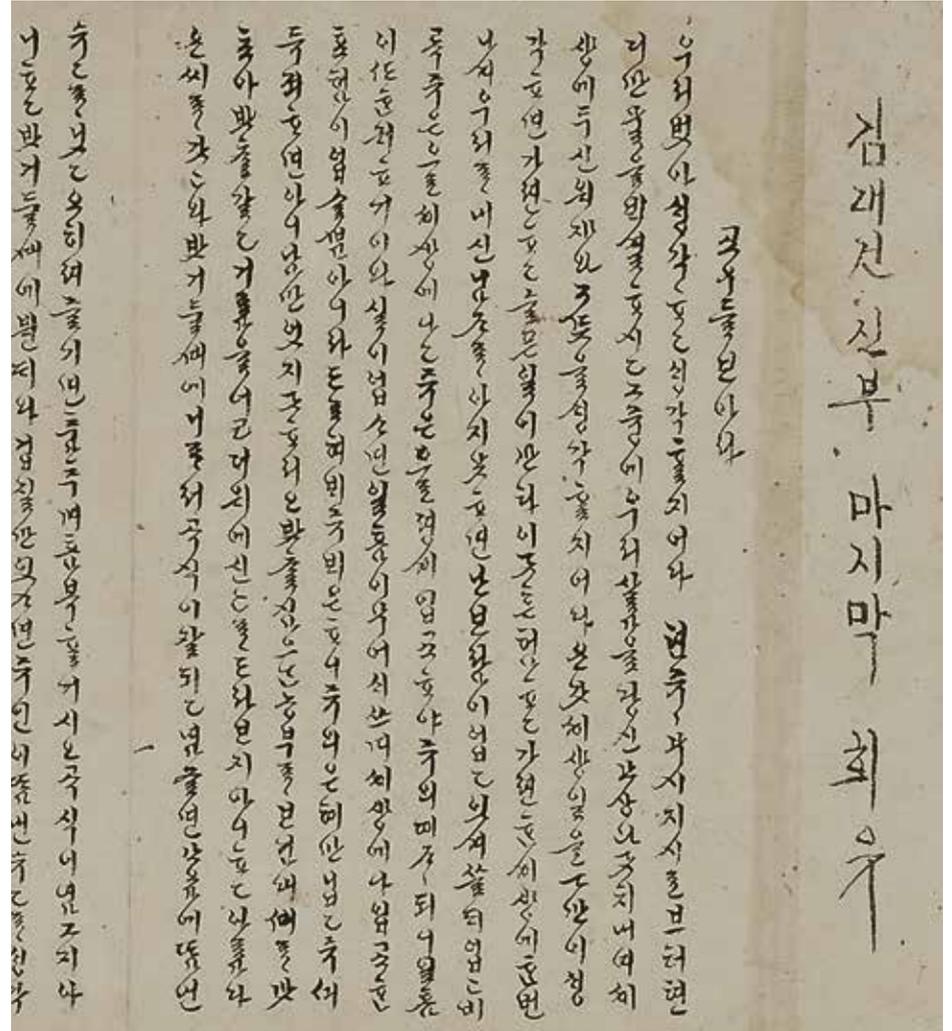
김대건 신부는 2021년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희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째 한국인 사제였던 최양업도 동갑이었다. 따라서 2021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땅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두 분의 삶을 번갈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유종(有終)의 미(美)”라는 말이 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뜻이다. 김대건의 삶은 끝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가? 오늘날 도대체 순교(殉敎)라는 말과 선종(善終)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김대건은 13개월의 짧은 사제생활을 하면서, 그마저도 두 달간은 라파엘 호 위에서, 마지막 3개월은 옥에서 지냈다. 심문 과정에서 많은 관원들은 젊은 청년 김대건을 바라보면서 “가없는 젊은이, 어려서부터 고생이 많았군”하고 동정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이 청년의 재주와 외국어 실력을 이용하기 위해

살려주자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화근이 될 것이 두려운 고관들은 만장일치로 그의 사형에 찬성하였다. 그렇게 자신의 코앞에 있는 일만 걱정한 이들이 조선의 정치인들이었다.

1842년 에리곤호 안에서의 성장 이후, 함께 동승했던 매스트르 신부의 김대건 신학생에 대한 평가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안드레아의 영혼과 육신을 돌보려는 저의 미약한 노력을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을 신부님께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체



김대건 신부의 마지막 회유문 | 출처: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믿음의 증거자

김대건(7): 체포와 순교, 신덕(信德)과 용덕(勇德)

질이 튼튼해지고 또 그간 중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던 신학 공부를 그가 이제 다시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니 기쁩니다.”(메스트르 신부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서한, 1843.3.1.)

메스트르 신부는 마카오 대표부에서 조선신학생의 신학수업을 담당하면서 특히 김대건 신학생에게 프랑스어를 금지시키도록 본부에 건의했던 선교사였다. 신학생들은 대표부에서 각종 잡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를 익히고 있었는데, 그러한 잡무와 프랑스어가 라틴어 공부와 신학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파리본부에 건의를 하였고, 학업에 쫓기던 김대건 신학생에게는 프랑스어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에리곤 호에 5개월 동안 동승했던 메스트르 신부는 김대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의 건강과 영적인 성장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신학 공부를 마무리하고 사제서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다. 그는 김대건과 함께 육로로 혹은 해로로 조선에 들어가고자 했으

나 여의치 않았다. 그러면서 그해 겨울에 조선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안드레아 신학생에 대해 또 다시 이야기 한다. “안드레아는 여전히 저와 함께 있는데, 강하고 덩치가 크고 키가 큼니다. 그는 참된 빛에 눈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마침내 팬찮은 어떤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아가 신부님께 인사와 깊은 감사로 전해 달라고 합니다.” (메스트르 신부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서한, 1843. 11.21)

메스트르 신부의 예상대로 김대건은 훈춘과 경원을 통한 ‘서북로’ 개척을 위해 탐험을 하였고, 부제품을 받고 압록강을 건너 한양까지 들어갔다. 가장 인접거리에서 마지막까지 조선 신학생을 지켜보았던 메스트르 신부는 김대건 부제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를 하였고, 바로 이 대목에서 김대건이 최양업보다 먼저 사제서품을 받았던 이유를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안드레아의 원정이 매우 염려됩니다. 그의 행동이 별로 주의 깊지 못하다는 것을 신부님도 아시지요. 페레올 주교님께서 [최양업] 토마스에게 갑자기 반감을 품

으셨습니다. 이것은 주교님과 얼마 동안 같이 지내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교님께 이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기분 상해하실 것입니다. 저는 벌써 이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분께 몇 번 지적하였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겪은 수많은 장애가 그분의 성격을 많이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보다 행복한 시간이 오면 모든 것이 진정될 것입니다.”(메스트르 신부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1845. 5. 25)

스승의 판단은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리다. 메스트르 신부의 예상대로 뛰어난 신학생이었던 최양업은 사제서품이 오히려 한참 늦어졌고, 김대건 부제는 극적으로 상해로 들어와서 홀로 사제서품을 받고 조선에 들어갔다. 그러나 역시 스승의 예상대로 김대건 사제는 너무도 빨리 순위도에서 체포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다.

김대건의 신덕(信德)과 용덕(勇德)은 마지막 옥중 3개월 동안에 가장 빛이 난다. 처음 심문에서 김대건은 자신을 마카오에서 공부한 우대건이라고 진술한다. 해주 감영의 진술에는 김대건 사제가 옥중 생활의 시작점에서도 불굴의 신앙을 갖고 있음을 알려준다. “한번 나고 한번 죽는 것은 인간이면 면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천주를 위해 죽게 되었으니 도리어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묻고 버릴 문는다 해도 오직 마땅히 이와 같을 뿐이니, 때리든 죽이든 마땅히 이와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어서 때려 어서 죽이십시오.” 해주감영에서의 문초기록을 기록해 놓은 「해서문첩록」 기록에서는 김대건이 마지막 한글 편지에서 남겨 놓은 듯한 창조신앙과 천주 신앙을 전해주고 있다. “이 같은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나서 우리를 버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고 살아도 쓸 데가 없다.”(마지막 한글서한) 감옥생활에서 김대건 사제를 장악하고 있던 생각은 이 세상의 임자를 고백하는 천주신앙이었고, 영혼의 구원이었다. 그는 순위도 체포의 원인이 되었던 배 주인 임성룡의 아버지 임치백에게 요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믿음의 증거자

김대건(7): 체포와 순교, 신덕(信德)과 용덕(勇德)

셉이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주었고, 조선 조정의 명령에 따라 영국지도를 번역하고, 간단한 지리학 개설서를 작성하였다. 서양 선교사의 편지가 압수되면서 국내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김대건은 두 가지 필체로 외국어를 써 보이면서 철필이 있어야 완전히 다른 필체를 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고 기지를 발휘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페레올 주교님께 보내는 편지에는 어머니를 위로해달라는 아들의 간곡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제 어머니 우르술라를 주교님께 부탁드립니다. 10년이 지나 며칠 동안 아들을 볼 수 있었으나 다시 곧 아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부디 슬퍼하실 어머니를 위로해 주십시오. (...)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페레올 주교의 편지에는 김대건 사제의 사형 장면과 그의 마지막 강론 내용이 담겨 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으니 여

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외국인들과 교섭을 한 것은 내 종교를 위해서였고 내 천주를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천주께서는 당신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는 까닭입니다.”

김대건은 살아 생전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는가? 25세의 짧은 생애를 산 그에게 행복한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 증조 할아버지 김진후 비오, 작은 할아버지 김종한 안드레아, 그의 아버지 김제준 이나시오 모두 신앙으로 목숨을 바친 순교자이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고우르술라 어머니. 유교사회였던 당시 사람들이 말대로라면 그는 지상의 삶에서 고생만 하다가 임금도 부모도 모르는 대역죄인으로 사형을 당한 죄인이다. 25세의 짧은 생애를 통해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15세 소년의 유학길에서 순수한 학생의 성장을 보여주었고, 에리곤호의 통역자로서 해외

문물을 익히기며 발전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신덕과 용덕의 은총에 힘입어 발로 뛰고, 바다를 건너가며 조선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의 활동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3개월간의 감옥생활 중에서도 불굴의 신앙인 청년이요, 젊은 사제 선교사의 모습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 선종(善終)이라는 말은 선생복종정로(善生福終正路)라는 한문서학서에서 유래했는데,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바른 길이라는 뜻이다. 어쩌면 25세의 청년 김대건 사제는 순교와 선종이라는 말에 모두 어울린다고 하겠다. 학생시절의 부족했던 모습은 오히려 그의 노력과 성장, 용맹함으로 더 빛을 발한다. 그렇게 짧은 생애를 신앙을 위해 봉헌한 한국의 첫 사제 김대건은 살아서도

행복했고, 죽어서도 복된 신부이다. 왜냐하면 살아도 천주와 신자들의 사제요, 죽어서도 천주와 우리 신자들의 사제이기 때문이다. 김대건 신부는 마지막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한글로 우리를 위로하며 매우 담백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내가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의 일에 어찌 거리낌이 없겠는가? 그러나 천주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나보다 더 착실한 목자를 주실 것이니, 부디 서러워 말고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 머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천만 바란다. 잘 있거라.”

묵상

살아서도 죽어서도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실천해보자.

베드로의 둘째 서간

그리스도인 다운 삶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이 편지의 서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처럼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인사한다고 언급합니다.(1,1) 또한 이 편지의 수신인들이 먼저 보낸 베드로 첫째 편지의 수신인들과 같다고 말하는 대목도 있습니다.(3,1) 그런데 이 편지는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한 교회에 발송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상대로 쓰여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로마황제 네로의 통치 시기 후반부인 AD 66년경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글로 추정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각지에 흩어져있는 유대계 그리스도교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것을 추정합니다.

2. 언제,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회 일부에서는 재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하느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의심을 불러왔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당시 교회 내에 퍼졌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 줄 때, 교묘하게 꾸며 낸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

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한 것입니다.”(1,16) 동시에 믿음과 희망에 관하여 조롱하는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논란을 감안할 때 교회사에 비추어 저술 시기는 대략 1세기 말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대략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에 저술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함락 전에 살던 이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신자가 많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사라졌으나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 자체를 비웃는 신자들이 속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누가 이 편지를 썼나?

이 편지의 저자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언급합니다.(1,1) 그리고 저자는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 줄 때, 교묘하게 꾸며 낸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한 것입니다.”(1,16)

그러나 오늘날 성서학자들은 이 편지가 베드로 사도의 작품이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썼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베드로의 첫째 편지와 베드로의 둘째 편지가 글의 형식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각기 다른 저자가 저술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편지는 신앙 성경중 정경으로 인정되기까지 가장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자는 이 편지를 우아하고 장중하고도 독특한 그리스어로 기술했으며 이러한 그리스어 문장은 베드로 첫째 편지와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4. 편지의 내용

1) 베드로의 둘째 편지는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첫째 편지와는 다르게 격렬할 정도로 논쟁적입니다. 거짓 교사들 또는 신자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실속을 차리는 자들이 신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위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교리에 의혹을 가질 뿐 아니라 그에 대하여 조롱하는 것을 반대하여, 이 편지의 1장과 3장에서는 그리스도 신자의 희망은 튼튼한 기반을 갖고 있으며 확실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 그리스도는 영광중에 재림하실 것이며(1,16-21),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이 최후의 심판은 틀림없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예로부터 있어 왔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홍수에 잠겨 물로 멸망하였습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도 불에 타 없어질 때까지 같은 말씀으로 보존됩니다. 불경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날까지만 유지되는 것입니다.”(3,5-7)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와서, 하늘은 굉음을 내고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간곡히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싸여 스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3,12-13)

3)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출현을 지적하며 이들이야말로 심판 때 크게 벌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2,1)

베드로의 둘째 편지가 저술될 시기에는 주의 재림을 고대하던 교회의 시기는 지났고, 그리스도교인들의 평범한 생활을 실천해야 할 사도교회의 후기로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저자는 이러한 교회의 전환기에 처해서 사목자로서 신자들을 위로하며 주의 재림에 관한 희망을 굳게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3,9) 그래서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고 하며 훈시합니다.

4)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3,14)

또한 자기 사상을 옹호하려고 함부로 성경을 인용하는 자들을 두고서 저자는 성경이란 마음대로 알아듣고 풀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그는 모든 편지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더러 알아듣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무식하고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 구절들을 곡해하듯이 그것들도 곡해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옵니다.”(3,16)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파견 받은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1 20-21).

5) 오늘날도 이단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처럼 거짓교사들은 성경을 악마적 목적에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무법한 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3,17)

이 편지의 저자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과 그분에 대한 앎을 더욱 키워 나아가라고 하면서 이제와 영원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편지를 끝맺습니다.

5. 편지의 교훈

거짓교사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달콤한 말로 신자들을 속여 착취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헛된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날이 오면 하늘은 불 타 없어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느님의 예언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느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의 저자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교회사 안에서 보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

한달 동안 성경읽기

<input type="checkbox"/> 1주간	<input type="checkbox"/> 2주간	<input type="checkbox"/> 3주간	<input type="checkbox"/> 4주간
2베드 1장	2베드 2장	2베드 3장	2베드 1장-3장 전체

시간이 나는 대로 짧게 혹은 길게 자신의 시간에 맞게 읽으십시오. 장소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매일 읽고 작은 소리를 내면 더 좋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기가 어려우면 녹음된 복음을 들어도 됩니다(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소리 성경'). 다 읽으시고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베드로의 둘째 서간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봅시다.

- ① 베드로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나요? (1,1)
- ②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3)
- ③ ()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8)
- ④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면 안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1,20)
- 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2,1)
- ⑥ 거짓 교사들은 누구를 부인하나요? (2,1)
- ⑦ 의로움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어느 편이 더 낫다고 했나요? (2,21)
- ⑧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 같고 ()이 하루 같습니다. (3,8)
- ⑨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3,15)
- ⑩ 사실 그는 모든 편지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더러 알아듣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무식하고 ()이 확고하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 구절들을 ()하듯이 그것들도 곡해하여 스스로 ()을 불러옵니다. (3,16)

구경꾼이 아닌 전례 거행의 주인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전례 행위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가진 이들의 행위가 아닌 모든 교회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전례 행위는 하나의 교향곡에 비유해볼 수 있습니다. 교향악단은 지정된 자리에서 각자의 악보를 가지고 연주하는 연주자들과 이들을 지휘하며 전체 책임을 맡는 지휘자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휘자만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향악단이 다양한 소리를 하나의 교향곡으로 엮어내는 것처럼, 교회의 전례도 다양한 하느님 백성의 참여를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 안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전례의 주체

전례를 거행하는 주요한 주체는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직무를 부여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례 행위 안에서는 전례를 위해 모인 공동체가 그 직무를 대변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 전승에 의해 교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례 행위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인 교회의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지체는 직책 및 실제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모양으로 이에 관여하게 됩니다(전례헌장 26항).

전례를 거행하는 이들

성직자들은 서품을 통해 각각 고유한 전례 직무를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많

은 전례 행위가 이들에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직자들만이 전례의 공식 집전자이거나 모든 전례의 주체는 아닙니다. 세례성사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 평신도들은 성직자들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화답하며, 제물을 봉헌하고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평신도들 가운데 전례 행위 안에서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전례 봉사자라고 합니다. 복사, 독서자, 해설자, 성가대, 연주자, 독창자, 성체 분배자, 제의실 담당자, 그리고 전례분과 위원 등이 모두 전례 봉사자에 속합니다. 이들 봉사자들은 그들의 직무를 완전하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례 전반 및 고유직무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전례 공동체를 이루는 다른 평신도들도 전례의 주체로서 모든 전례 행사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곧 전례 의식을 깊이 이해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전례에 완전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능동적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례헌장에서도 여러 번 이에 대해 언급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후의 개정된 예식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신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전례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터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적이고 능동적인 전례 참여와 거행

교회를 이루는 각 구성원은 전례 집회 안에서 각기 고유한 몫을 담당하는 만큼 각자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참으로 노래하고 기도하며, 동작을 취하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전례 행위는 본성상 공적인 행위이며 공동예식으로 거행되는 것이니만큼, 될 수 있는 대로 신자들이 참석하며, 집회를 이룬 가운데 거행되어야 합니다. 부득이 전례 행위를 집회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거행해야 할 때도 그 행위가 교회의 온 몸과 관계되고 그 몸을 드러내며, 또한 교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

아야 합니다.

전례의 구성원들이 교회를 드러내는 표지이며 전례 거행의 드러나는 행위 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전례 공동체가 모이고 기도하고 경청하고 응답하고 감사드리고 봉헌하는 것들은 바로 교회가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례 공동체는 전례의 근원적인 집전자이며 유일한 중개자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전례를 거행합니다.

능동적인 참여자

전례현장에서 이르듯이 교회는 신자들이 전례에 묵묵한 방관자처럼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고,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또 자각하는 참여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전례 구성원 중에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구경꾼은 없고 행위자가 있을 뿐입니다. 전례 공동체는 각 구성원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도하심에 의해서, 내적·외적으로, 한마음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례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의식적이며 내적인 경건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례 활동의 목적은 신앙과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가 한데 모여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희생 제사에 참여하고 주님 만찬을 먹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전례헌장 10항).

현대의 전례 참여

20세기의 전례 역사를 고려할 때, 전례 참여는 예식들을 거행하는 직무자들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신자 모두와 관련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의 전례적인 참여는 능동적인 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려 했던 19세기의 전례 운동과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전환이 없었더라면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6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과연 우리가 이런 개혁을 어떻게 실천해나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2005년 10월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이후에 베네딕도 16세의 교황권고 「사랑의 성사」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참여가 전례 거행 동안의 외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능동적 참여라는 개념은 거행되는 신비, 그리고 이 신비와 일상생활의 관계를 더 잘 인식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즉 전례는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거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전례의 참여를 통해 그 안에 담겨있는 유익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례적 참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 진지하고 견고한 전례 탐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탐구와 교육은 우리가 전례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선택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실존의 최종적인 의미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의 전례 예식 안에서 봉헌되고 받아들여진 하느님의 은총이 그런 신앙입니다. 썬신의 작업은 과거에만 멈춰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이러한 목적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전례 참여의 의미를 깨닫고 더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도와줄 것이고, 더불어 팬데믹으로 인해 느려진 우리 신앙의 삶에도 더 활기찬 동력을 더해 줄 것입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St. Margaret Mary Alacoque (축일: 10월 16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작은형제회

과연 오늘날 예수 성심 공경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입니다.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는 1647년 6월 22일 프랑스 샤롤레(Chaolais) 지방에서 7남매 중 다섯 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귀족 가문의 귀한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숲에서 기도하고 성체 앞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클라라회에서 운영하는 샤롤레의 기숙학교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클라라회 수녀들을 보고 감동해서 수도 생활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경계통의 질병이 생겨서 그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열다섯이 될 때까지 5년 정도 병상에서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만일 자신의 질병이 낫는다면, 일생을 성모님의 딸로 자신을 봉헌하며 살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으로 그녀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1671년 6월 20일 파레르모니알(Paray-le-Monial)의 성모 방문 수녀회에 입회하였습니다. 1672년 11월 6일에 ‘마르가리타 마리아’라는 수도명으로 수도서약을 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673년부터 1675년 사이에 예수 성심의 환시를 4번이나 경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 성심 공경과 매주 목요일에 성시간을 갖는 전승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본 바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였으나, 신학자들과 동료 수녀들과 자기 수도회의 장상으로부터도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온갖 장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반대를 극복해 나



갔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녀의 이야기가 옳다는 점을 당시 수녀원의 고해사제를 통해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녀가 지지를 받게 되었고, 1686년부터 계속해서 예수 성심 공경이 세계적으로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녀는 1690년 10월 17일 선종하였고, 1920년 교황 베네딕토 15세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1765년에 교황 클레멘스 13세에 의해 예수 성심 공경이 선포되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개혁을 통해서 예수 성심 대축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처럼 온갖 반대와 고난과 역경과 반대 속에서도 그녀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마르가리타Margarita, 혹은 마가렛Margaret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렛이라는 영어 이름의 어원을 그리스어에서 찾아보면, μαργαρίτης (마르가리테스, 남성명사)입니다. 이 명사의 뜻은 바로 ‘pearl’(진주)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렛이라는 이름의 여러 변화형태를 살펴보면, Maggie (매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태리어로는 Margherita (마르게리타)입니다. 마르게리타 피자가 마르게리타 여왕 시절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르게리타 피자라고 하며, 현재도 피자계의 ‘진주’로 전세계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진주의 형성과정을 다시한번 살펴볼까요? 천연진주는 가리비 등의 조개 내부에 이물질이 자꾸 침입하여 누적되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조개는 이물질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그것에 대한 화학적 반응을 보여서, 결국 자기 안에서 진주라는 아주 값진 보석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내부에서 보화를 만들어내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주라는 보석의 형성원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 로마 8,17 -

예수 성심을 전파한 프랑스의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는 ‘마르가리타’, 혹은 ‘마가렛’이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마지막에 꽃피울 ‘진주’를 위해 모든 과정들을 견뎌내는 끈기와 용기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합시다. ‘진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글어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하루 또 하루 일상에 충실하도록 애쓰도록 합시다. 그것이 마지막에 세상에 드러낼 ‘진주’를 위해 오늘 마르가리타 자매님들이 할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톨릭 직장인 후원금 안내 🌳

1.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2.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지면에 광고 게재 가능)
3.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4.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010-4799-2078 / gikjang@catholic.or.kr



* 개인 후원: 이광수

2021년 예비자교리 현황 🎁

2021년 직장공동체 예비자 교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비자교리를 하시는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교우회명	SC제일은행	강북구청	구로구청	국회	서대문구청	총 / 23명
인원	1	1	2	4	1	
교우회명	서울시청	서초구청	제주항공	한국은행	-	
인원	1	7	5	1	-	

구 분	내 용
교리기간	6월 7일-12월 10일, 총 27주
교리방법	EDWITH를 이용한 비대면 교리
참고피정	12월 12일(주일) 09시 30분~16시, 영성센터 B201
세례성사	12월 19일(주일) 13시 30분, 명동대성당
문의전화	02-727-2078, 2080 / 010-4799-2078

기도 학교

묵상 기도(2): 묵상의 실천

차동욱 시몬 신부_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영성지도

이번 호에서는 지난호에서 살펴본 묵상 기도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묵상 기도의 실천은 가장 기본적인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리(推理)의 단계와 감성(感性)의 단계입니다. 추리는 이미 아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다른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지요. 이성과 상상을 통해 성경에서 드러난 주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 주제를 통한 새로운 깨우침을 얻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면 감정의 반응도 묵상 안에서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화 안에서 하느님과 더 친밀한 교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묵상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묵상이 실천으로 나아가는 의지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고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돕는 행위는 그다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가없이 여기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만으로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은 항상 실천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묵상이 기도시간 안에서만 끝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살아나 실천되었을 때 비로소 묵상 기도는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기도를 한 시간만을 두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만난 하느님을 통해 새로운 일상의 삶을 실천하는 시간까지를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성경주석이나 공부라 고들 많이 강조합니다. 지식은 묵상 기도를 위한 좋은 요건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수행된 묵상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고, 변화와 새신을 실천하는 의지를 분명히 간직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묵상 기도의 실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묵상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 묵상 중에 받은 감격을 이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묵상에서 일로 옮겨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는 변론으로, 상인은 거래로, 한 가정의 주부는 집안일로 조용히 옮겨가야 합니다. (...) 일상의 일이나 묵상 모두 하느님의 뜻이므

로 무엇을 하든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신심생활입문 II, 제 8 장」 묵상이 자신의 실제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성인의 말은 기도와 삶이 유리되지 않고 하나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있습니다.

한편,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묵상의 감성적 부분을 정감(情感)의 기도 (Affective Prayer)라는 표현을 써서 기본적인 묵상과 구별하기도 하였습니다. 묵상의 깊은 단계로 나아갔을 때, 이를 수 있는 상태로서 추리보다는 감정 작용의 우세함을 경험하며 하느님과 사랑 체험이 주를 이루는 묵상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느님 사랑의 감정적 체험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기 때문에 억지로 애정이나 감정 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함께 전해집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 역시 묵상 안에서 감각적 위로를 중요하게 여기면 즐거움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할 위험이 있다고 했으며, 이것을 ‘영적탐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도 묵상 기도가 묵상 안에서만 끝나버리고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호에 말씀드렸던 베네딕도 수도회의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의 방식을 따른 묵상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불리는 거룩한 독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수도원의 사람들은 여러 시간에 함께 모여 성경을 낭독하고 또 들었습니다. 전례 때는 물론이요, 식사 전에도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이 낭독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에 들리는 말마디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려는 묵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들으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더 나아가 하느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Lectio Divina의 묵상 단계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여 듣게 됩니다. 읽는 것은 듣기가 되고 집중은 묵상이 됩니다. 이것이 ‘Lectio’, 즉 읽거나 혹은 듣는 순간의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단어나, 구절, 장면을 간직하여 반복해서 묵상합니다. 이것이 ‘Meditatio’, 묵상의 단계입니다. 이 묵상이 마무리 될 때쯤이면, 묵상의 내용을 직접 하느님 또는 예수님께 말씀드리거나 새로운 깨달음에 대하여 여쭙보는 등 대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곧 ‘Oratio’, 기도의 단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묵상에 더 깊이 머물고 쉬는 마음으로 하느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친밀함을 간직하는 ‘Contemplatio’, 관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묵상 기도를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펴고 기도하려는 자세가 먼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매일 미사’ 책이 있습니다. ‘매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그 중에서도 복음을 중심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반복하다보면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나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표시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루시는 대화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 왜 이 구절이 나에게 와 닿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왜 하느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이 성경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일깨우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의 삶을 비추어 드러내며, 내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새롭게 일깨우시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정서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느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실제적인 힘과 위

로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을 시작할 때 무조건 성경을 펴는 것보다 먼저 몸과 영혼이 일치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준비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몸은 기도 장소에 와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아직도 달하지 못하여 기도가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몸에 함께 있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몸과 마음의 일치를 통하여 온전히 이 자리에 머물고 모든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준비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호흡기도’와 같은 기도를 기도의 시작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처럼 정돈된 호흡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편안히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이 숨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호흡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숨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총, 사랑, 생명, 영, 힘 등을 들이신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쉴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느낍니다. 반대로 내쉴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악, 두려움, 불안, 부정적 감정을 뱉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가득 찬 불순물들을 비우고 가라앉히며 하나님을 말씀으로 모실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흡기도는 호흡의 다스림으로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좋은 준비 기도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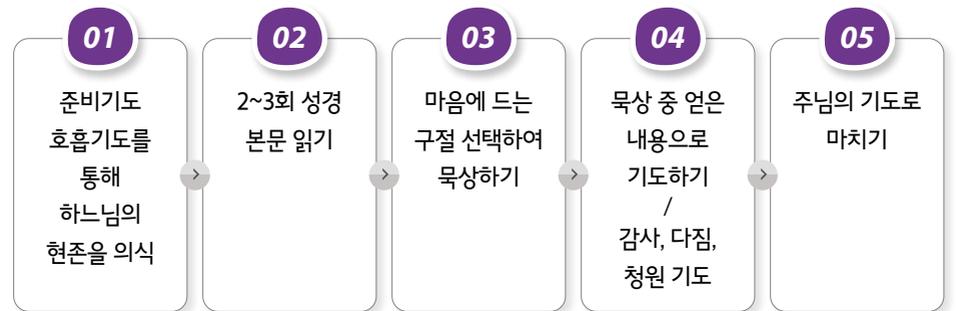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상의 모든 것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묵상 기도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호흡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

는 준비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주어진 성경의 본문을 두세 번 천천히 읽습니다. 세 번째,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을 선택하여 묵상합니다. 묵상할 때는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떠올랐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생각해봅니다. 네 번째, 묵상에서 얻은 내용을 토대로 기도를 바칩니다.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 새로운 다짐, 원하는 것에 대한 청원의 기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돌아보고 주님의 기도로 천천히 기도를 마칩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묵상이 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흉내 내다가 말할 줄 알게 되는 과정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묵상 안에서 자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묵상의 실천입니다. ☺



렉시오디비나 기도 방법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22

과학기술과 생명윤리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여정 가운데 있는 인간

지난 호까지 우리는 생명윤리의 개별 분야들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은 분명히 아닙니다. 인류의 발전과 함께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생태,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인류의 삶이 끝나지 않는 이상, 인류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윤리 문제들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며, 현대 사회는 그러한 윤리 문제들을 생명윤리(Bioethics)라는 이름으로 성찰하였다면, 또 다른 이름의 윤리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를 포함해서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도상에 선 존재이며, 아직 도달하지 않은 어떤 지평을 찾고 자신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순례자”^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코너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인간은 끊임없이 “더 나은” 자신이 되려는 갈망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절대적인 것,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신앙인들은 그 갈망이 하느님 안에서 채워질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① 엘리오 스그레차, 『생명윤리의 이해 2』, 정재우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6, 968쪽.

과학 기술의 발전과 윤리 문제

그런데 언제나 인류는 발전을 지향하고, 그로 인한 변화를 겪으며 살아왔다면, 오늘날 유난히 과학 기술의 발전과 윤리 문제가 부각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류는 불을 발견하고, 쟁기를 발명하고, 바퀴를 발명하고, 마차를 발명하고, 증기기관을 발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기술의 등장이 윤리적 성찰과 연결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이내마이트와 같은 폭발물이 발명되었고,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기도 했지만, 다이내마이트의 발명 자체가 윤리적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왜 이토록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윤리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간의 잠재력이 인간 자신과 인류 전체를 파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2. 인간이 이룩한 성취들을 영원하고 심오한 인간의 가치들과 종합할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
3. 그것을 위해 인류 전체적 성장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

사실, 생태 환경 문제만 하더라도 단지 몇몇 사람들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전 지구적 문제는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온 인류의 시각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 문화적 변화

사실, 기술의 발전은 과학이나 기술과 같은 특정 분야의 변화로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술적인 상황은 당시의 사회, 문화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원시 사회는 가족과 부족이라는 단순한 사회 조직과 동굴과 같은 자연 주거를 이용했습니다. 농경 사회는 보다 거대한 문명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물 교환이 발달하고, 예술과 문학과 철학, 법 등이 발달했습니다. 산업 사회는 기계를 통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자본주의의 발달을 가져왔고, 그에 따른 소비주의, 쾌락주의, 인구문제 등을 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4번째 시기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포스트 휴먼/트랜스 휴먼 등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것은 아마도 생명공학, 정보기술, 로봇공학, 나노기술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휴먼(후기 인간 혹은 탈인간)이란 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는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기존의 개념이 무너지고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핵심 기술들은 유전자 편집과 같이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②

인간의 참된 선을 위한 과학 기술의 발전

때문에, 과학 기술의 진보가 인류의 자멸을 막고, 참된 진보를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물론, 과학적인 진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고 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학은 모든 것을 숫자로 환원하고 계산하고, 측정 가능한 면만을 다루게 됩니다. 세상을 과학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세상의 존재 의미나 목적 등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삶은 생체 기능의 지속이나 본능에 따른 행동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

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죽음 너머를 희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운 인간의 모습은 과학 기술로 측정하거나 계산해 낼 수 없습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이미,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갈망하는 인간 마음의 표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발전과 진보는 완성을 향한 인간의 충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야말로 참으로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완성을 향한 움직임이 과학의 발전이라면, 우리는 그 과학 기술이 참으로 인간에게 이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교정해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인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불리움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주의 무한하고 냉혹한 진화의 산물로 주어진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것, 충만한 의미를 지닌 삶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생명윤리의 성찰이 가톨릭 직장인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② 참조: 『생명윤리의 이해 2』, 969-970; 신승환, 『포스트 휴머니즘의 유래와 도래』, 서강대학교출판부, 2020.

일상에서의 감사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다. 졸업 후 40여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고 보니, 학창 시절의 추억도 생각나면서 즐거웠다. 그런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반갑기는 하면서도 대화의 내용이 나와는 맞지 않고 공감도 되지 않았다. 아파트, 땅, 주식, 펀드 등 온통 재테크와 재산 증식, 취미생활, 자식자랑, 심지어 반려견 자랑까지 끝이 없었다. 그동안 물질적 풍요 보다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었기에 특별히 남들처럼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은 별로 없었다. 물론 정년을 앞둔 지금, 혼기가 꽉찬 아이들 문제, 가족들의 건강과 퇴직 후의 생활 자금 등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그동안 주님께서 내게 주신 크고 작은 은총들을 헤아려 보니 감사할 일이 참 많았다. 그 중에서도 지난 수 십년간 거의 매일 미사 참례를 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은총을 생각하니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기도가 우러나왔다.

“저를 이끄시는 주님!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시 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감사함을 찾게 하소서.
세상의 눈으로 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총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Question

지금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나누어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티모테오1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 집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8절) 라는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세상의 소비 주의와 자기만족의 탐욕스러운 마음과 가벼운 쾌락에 대한 무절제한 추구, 무더진 양심은 우리에게 세상의 만족만을 찾게 하고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기쁨을 더이상 느낄 수 없게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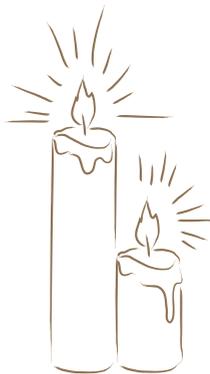
“거룩한 백성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시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은총에 힘입어 싸



워야 한다. 하느님을 소유하고 그분을 빚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죽이고, 하느님의 은총으로써 쾌락과 권세에 관한 유혹을 물리친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2549항]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Cornerstone



Monogram of Christ (the Chi Rho) on a plaque of a sarcophagus, 4th-century CE, marble, Musei Vaticani, on display in a temporary exhibition at the Colosseum in Rome, Italy

예수 그리스도 상징(Christogram, Latin: Monogramma Christi)

크리스토크램(Christogram)은 예수의 이름을 축약한 글자의 모임이자 모노그램이며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종교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키로(Greek:XP, Chi-Rho)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모노그램 가운데 가장 오래된 크리스토크램 중 하나이고, 십자가와 함께 대표적인 그리스도교의 상징이다.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어 대문자로 "ΙΗΣΟΥΣ"로 발음되며 IHS(JHS, IHC, 또는 IHΣ로도 씀)로 줄여서 말하며, 크리스투스(Christus)라는 이름은 "ΧΡΙΣΤΟΣ"로 발음되며 XP(IX, XPO, XPS, XPI, XPO, XPM 등의 변형 있음)로 사용된다. 그리스도(Greek: ΧΡΙΣΤΟΣ 크리스토스)의 처음 두 문자인 X(키)와 P(로)를 합쳐 만들었다.

키로는 그리스도, 특히 죄와 죽음에 대한 그분의 승리를 뜻하며, 제단, 제구, 제의 등에 널리 사용된다. 영어 X와 P에 유사하나 이를 피엑스(PX)나 팩스(Pax) 등으로 읽지 말고, 반드시 그리스도로 읽어야 한다.

로마 제국 시기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역사가 루키우스 카이킬리우스 피르미아누스 락탄티우스(Lucius Caecilius Firmianus Lactantius, 240년~ 320년)는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비우스 다리 전투 전날 꿈의 지시대로 병사의 방패에 키로를 그린 후 전투에 승리하여 그리스도교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교회 전례는 예수님 이름의 그리스어 철자 "JHSUS"에서 'JHS'만 떼내어 제단에 새기기도 하고 흔히 전례복의 등(背) 쪽에 수를 놓기도 한다.

알파(α)와 오메가(Ω)에서 알파는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이며 오메가는 끝 글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작과 끝을 나타내며, 그리스도께서 세계와 역사의 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묵시 22, 13; 이사 41, 4). 알파는 오늘의 로마 문자 'A'에 해당하며 오메가는 'Z'에 해당한다.

'익투스'(ΙΧΘΥΣ) 즉 물고기라는 글자는 '예수' 'I'(예수스), 그리스도 'X'(크리스토스), 하느님 'Θ'(테오스), 아들 'Υ'(휘오스), 구세주 'Σ'(소테르)'를 뜻하는 희랍어의 첫글자들을 따서 만들었다.

'INRI'는 라틴어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뜻의 첫글자들 '예수' 'I'(예수스), 나자렛 'N'(나자레누스), 왕 'R'(렉스), 유대인 'I'(유데오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전 음악을 듣다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5번 ‘종교개혁’ -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의 음악 속에서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하이든이 사망한 해, 38년의 짧은 생애를 산 멘델스존(1809-47)이 탄생했다. 음악사조는 낭만주의로 변했고, 그는 그 중심의 한 사람으로 맹활약을 하였다. 그의 낭만주의 교향곡 중 마지막 제5번 d단조 Op.107에는 ‘종교개혁’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1830년 종교개혁 300주년 축제를 위해 작곡하였기 때문이다. 이곡에 대하여 종교개혁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감상할 것을 권장한다. 바흐가 개신교 지역 북독일(라이프치히) 루터교회(성토마스 교회)에서 활동하였다고 그의 음악을 싸잡아 개신교 음악이라 하지 않고, 모차르트가 가톨릭 국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성당이나 빈의 슈테판 성당에서 활동하여 그의 음악을 개신교인이 싫어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

다 알다시피 종교개혁은 재정확충을 위해 대사를 남발하는 로마가톨릭에 대하여 1517년 마르틴 루터(1483-1546)가 자신이 봉직하던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 앞에 96개 항목의 항의문을 게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향후 정치와 결합되어 역사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으로까지 발전되었는데, 사실 음악적으로도 큰 사건이었다. 사제만이 아는 라틴어 성경을 대중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한 루터는, 음악에서도 전문가(전속합창단)만이 부르는 어려운 성가 대신에 대중이 ‘쉽게 그리고 힘차게’(특히 따라하기 어려운 고음역의 기교적 음악을 제외) 부를 수 있는 ‘코랄’을 도입하였다. 독일어로 ‘Choral’인데, 그대로 영어로 사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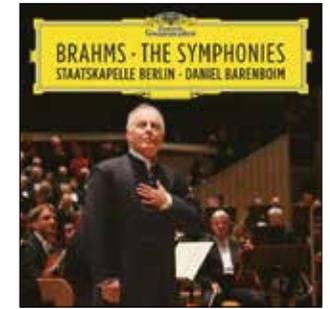
Mendelssohn: Symphonies Nos. 1-5
Chamber Orchestra of Europe, RIAS Kammerchor,
Yannick Nézet-Séguin
Release Date: 16th Jun 2017
Catalogue No: 4797337
Label: DG
Length: 3 hours 19 minutes

‘choral’은 ‘합창’이고, 독일어의 ‘Choral’은 영어로 ‘chorale’로 쓴다. 따라서 우리는 정확히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독일어 발음 그대로 ‘코랄’이라고 하거나, ‘(독일)찬송가’라고 한다. 루터는 코랄 가사도 거의가 대중에 회자되던 쉬운 기도문을 가져와 작성했고, 선율은 새롭게 창작하지 않고 대부분은 독일민요, 암브로시우스 성가, 중세교회의 독송(讀頌), 그레고리우스 성가 등에서 차용하였다. 루터는 다수의 코랄을 거의 1523-24년 사이에 한꺼번에 다 만들었는데(창작이 아니었으므로), 1528년에는 가장 유명한 코랄인 시편46편을 가사로 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Ein feste Burg ist unser Gott)’을 만들었다(다만 이곡은 아마추어 류트연주가 루터가 스스로 작곡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기는 하다).

그렇기에 멘델스존 교향곡 제5번 ‘종교개혁’은 마지막 제4악장에서 코랄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선율을 플루트 독주로 시작하면 이윽고 목관 파트의 악기들이 따뜻한 음색으로 이 선율을 감싸 안으며 중심 주제로 발전시켜 장엄하게 펼쳐진다. 제1악장도 역시 개신교 지역인 독일 작센주의 드레스덴에서 6개의 음표로 불려지던 ‘아멘’(이를 ‘드레스덴 아멘’이라고 한다)으로 시작한다. 쾌활한 스키프초의 제2악장에 이은 아름다운 기도와

도 같은 제3악장도 감동적이다. 이렇듯 곡을 마무리하는 제4악장에 북독일 개신교의 코랄, 그것도 루터의 가장 유명한 코랄을 차용하였기에, 이 곡을 마치 개신교 선전용 음악으로까지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선입견을 떨쳐버린다면 멘델스존의 개인적 고뇌가 승화되는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브람스의 교향곡 제1번 c단조 Op.68에서도 제4악장의 C장조 주제는 환희의 코랄이었다. 브람스가 평생 연모하였던 클라라를 향한 호른이 인상 깊은 서주에 이어서 네마디 짝수로 딱맞아 떨어지는 쉬운 선율(코랄)이 등장할 때 느끼는 숨막히는 감동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코랄은 위에서 본 것처럼 여러 중세성가의 선율에 기반하고 있다지만, 실제로는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뽕짝 뽕짝’하는 독일민요의 선율도 많다. 바흐의 마태수난곡이나 요한수난곡에도 코랄이 원곡 그대로 자주 등장한다. 다작으로 유명한 바흐가 작곡이 귀찮아서 코랄을 그대로 썼을 리 만무하다. 바흐가 봉직했던 북독일(작센주) 라이프치히의 성토마스 교회도 개신교 지역이었므로 코랄을 차용하였지만, 바흐나 멘델스존이나 코랄을 훌륭하게 성숙한 음악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코랄 그 자체는 주로 대중이 부르기 쉬운 민요선율에 가사를 바꿔 부르는 이른바 ‘콘트라팍툼(contrafactum)’의 형식으로 음악적 수준은 퇴행적이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선교사의 미국찬송가(코랄에 기원을 둬)를 통해 서양음악을 접한 후, 스코틀랜드의 민요 ‘올드 랭 사인’에 애국가 가사를 붙여 부른 것과도 같다. 어떻게 보면 종교음악의 영역에서 코랄은 음악적으로는 수준 낮은 ‘대중가요’에 상응할지도 모르겠다. 이는 여기서 절대로 대중가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음역대가 좁으며 짝수 마디로 딱 떨어지는 음절과 단순하고 선율이 반복되는 형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긴 지속음이나 장식적인 멜리시마(가사 한 음절로 여러 음들을 이어 부르는 것)로 이루어진 기존의 가톨릭 성가와 달리, 루터의 코랄은 대체로 가사의 한 음절에 한



Brahms: The Symphonies
 Staatskapelle Berlin, Daniel Barenboim
 Release Date: 14th Sep 2018
 Catalogue No: 4835251
 Label: DG
 Length: 2 hours 59 minu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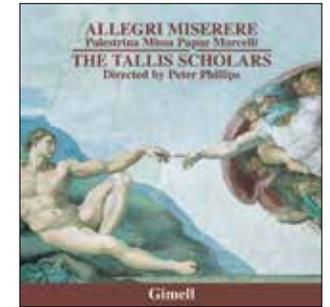
음씩만 할당되었고, 선율들도 음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3화음의 화성반주를 하여 부르거나 듣기에 쉽고 편했으며, 이러한 찬송가 악보의 대중적 보급도 이루어졌다(예를 들면 1524년 드레스덴 궁정악장 요한 발터의 ‘비텐부르크 성가집’).

북독일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도 개신교가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하던 시절 가톨릭에서도 반성과 함께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나 이른바 ‘반종교개혁’이 1545-63년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표출되어 종교음악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여전히 일반대중의 성가 부르기보다는 전문합창단의 성가를 유지하면서도 난해한 다성음악을 지양하는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음악가가 팔레스트리나(1525-94)로 예컨대 그의 ‘교황 마르첼로 미사’(1567)에는 정교한 다성음악과 명징한 화성음악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깊은 감동을 준다. 그의 음악은 ‘팔레스트리나 양식’으로 불리며,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이 신교와 차별되는 가톨릭의 신앙적 정체성이라고 인식하여 성모송이 발전하였다. 바로크 음악가 하인리히 비버(1644-1704)가 1670-80년 잘츠부르크에 머물며 작곡한 ‘로자리

오 소나타’는 목주기도의 목상과 실천을 돕기 위한 바이올린 기악곡이다. 여기서 소나타는 성악곡 칸타타에 대립하는 기악곡을 총칭하는 의미로서 고전시대의 바이올린 소나타와는 의미가 다르다. 수태고지에서 승천까지 성모 마리아 일생 중 주요한 15개의 사건을 담은 15개의 소나타로, 각 5곡씩 모두 3부로 나뉘어 제1부 기쁨의 신비, 제2부 슬픔의 신비, 제3부 영광의 신비로 되어 있다. 바이올린 현의 조율을 변경하여 연주하는 스코르다투라(Scordatura)기법을 사용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바이올린 기악곡으로, 마지막 반주없이 바이올린 독주로 연주되는 ‘파사칼리아’로 마무리되는 15개의 소나타의 대장정은 목상을 돕는 명상음악을 넘어서 깊은 감동을 준다.

다시 멘델스존으로 돌아가면, 할아버지가 시대를 풍미한 계몽철학자, 아버지 형제가 베를린에 독일 최대의 은행을 설립한 명문 부호가문에서 태어난 그였다. 집에 공연장과 오케스트라까지 갖추고, 괴테를 비롯하여 당대 명사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던 그였다. 비록 그의 집안은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였고, 알게 모르게 유대인이라는 차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대부호 명문가였던 멘델스존 가문에서 태어난 그의 앞날에 큰 장애가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으니, 후에 그의 전기를 통해 밝혀지는 누나 파니와의 심리적 유착이었다(파니의 아들이 엄마의 일기를 바탕으로 펠릭스의 전기를 썼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파니는 남동생 못지않은 음악적 재능을 가졌지만, - 클라라 슈만과 달리 - 멘델스존 가문의 보수적 전통에 억압(아마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점이 더욱 보수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되어 꽃을 피우지 못하였다. 후에 점차로 파니의 곡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동생 펠릭스의 이름으로 출판된 곡도 많았다. 각자의 행복한 가정을 가

Allegri: Miserere & Palestrina: Missa Papae Marcelli
Andrew Carwood, Deborah Roberts, Sally Dunkley,
Caroline Trevor & Donald Greig
The Tallis Scholars, Peter Phillips
 Release Date: 26th Feb 2007
 Catalogue No: CDGIM041
 Label: Gimell
 Length: 75 minutes



졌던 남매였지만, 펠릭스와 파니 멘델스존의 지나칠 정도로 끈끈했던 심리적 유착의 내면에는 하느님만이 아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당대 텔레만이나 북스데후데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바흐를 친할머니로부터 받은 마태수난곡의 악보를 가지고 되살려내, 오늘날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로 만든 멘델스존은 어쩌면 태생적으로 종교음악에 심취되었는지 모르겠다. 1847년 5월 갑자기 세상을 떠난 파니의 소식을 멘델스존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뒤늦게 듣고, 9월 베를린 파니의 빈방을 찾았다가 무너졌다. 얼마후 11월 4일 멘델스존도 세상을 떠나 데사우에 있는 가족묘역의 누나 옆에 안장되었다. 가톨릭 사제가 고해성사의 비밀을 엄격하게 지켜주듯, 음악은 마음의 비밀도 쉽게 보여주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멘델스존의 코랄은 그 밑에 팔레스트리나나 비버의 종교음악을 숨겨놓고 멘델스존 특유의 세련되고 유려한 소리로 포장한 듯 들린다. 극히 개인적 비밀은 하느님의 영역이기에 모든 종교음악은 그 각각의 형태대로 신비하기만 하다. 팔레스트리나, 바흐, 비버, 브람스, 그리고 멘델스존 모두!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드디어 그 곳 - 예루살렘!

심연선 소화테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이제 바야흐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성지순례 혹은 이스라엘 관광을 할 때에 예루살렘을 언제 가느냐로 일정을 만드는 편입니다.

예루살렘을 제일 마지막에 가느냐,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가느냐. 가장 중요한 곳을 언제 가는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럽의 가톨릭 산하 단체들은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특히 주님 무덤성당-을 방문 순서의 첫 번째에 둡니다. 왕에게 먼저 문안인사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이곳에 왔습니다. 콘서트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여느 오래된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구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 면적을 125km²로 보고 있는데, 그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0.9km² 면적에 해당하는 곳이 구도시입니다. 약 150여년 전만해도 예루살렘이란 도시에는 이 현재의 구도시만이 존재했습니

다. 해발 약 650미터의 견고한 암반으로 이루어진 산등성이에 위치한 이 도시는 기혼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깨끗한 물 덕분에 아주 오래전, 약 5천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었습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지만 평화의 도시이기 보다는 평화를 바라는 도시임은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도시 안에는 차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서쪽 야포 문 근처나 북쪽 다마스쿠스 문 근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차를 세워놓고 도보로 다니시면 좋습니다. 튼튼한 신발을 신는 것은 필수조건이겠지요. 약 5m 높이의 벌꿀색 예루살렘돌로 세워진 성벽은 4.5km 길이로 구도시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성벽은 약 400여년 전 오스만 터키의 술탄에 의해 지어진 것입니다. 북쪽에 세 개, 동쪽에 두 개(하나는 닫혀있음), 남쪽에 두 개, 서쪽에 하나 이렇게 총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성벽위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한번 정도 걸어보실 만합니다.

구도시 안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데, 민족적인·종교적인 이유로 4군데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머릿속에 4등분된 정사각형을 떠올리시고, 오른쪽 위칸부터 시계방향으로 무슬림 지역, 그 아래 유대인 지역, 그 옆에 아르메니안 지역, 그 위에 그리스도교인 지역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예루살렘 구도시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렇게 3대 종교의 중요한 성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지역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곳 위에 세워진 거룩한 무덤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지 주변으로 그리스도교 신자의 집과 정교회 수도원, 가톨릭 수도원 등이 모여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 남쪽부분에는 바위 사원이 있습니다. 황금돔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이슬람교 예언자인 무함마드가 승천하였다는 곳에





구시가지 새벽거리



예루살렘의 일출



올리브산에서 본 예루살렘 전경



다마스쿠스 문

세워진 사원입니다. 이곳 주변으로 무슬림 학교와 이슬람교인들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딘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사원이 있는 곳 - 현재 '성전산'이라고 불리어지는 - 어딘가가 솔로몬 왕이 세웠던 성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은 바빌로니아에게 파괴되었지만 나중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재건되고 하스모니아 왕조에 의해 증축되고 헤로데 대왕에 의해 화려하게 건축되지만 로마의 티투스 왕에 의해 다시 파괴되지요.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싼 벽만 남게 되는데, 그 벽의 서쪽 부분이 유대교 제1의 성지인 **통곡의 벽**입니다.

도보로 이 구시가지로 갈 때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운영하는 버스 정류장,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트램 정류장, 이스라엘 버스 정류장이 다 있는 다마스쿠스 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구시가지의 길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마스쿠스 문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난전으로 꽤 유명합니다. 빵, 채소, 과일, 잡화 등을 가져다가 파는 할머니들을 보면 우리네 시골 장터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랍어로 '몇 개에 얼마'를 목청껏 소리 지르며 파는 상인들과 바삐 이곳저곳을 오가는 인파가

가득한 문을 지나면 골목골목에 뽀뽀이 들어선 가게들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오신 분들이 '이런 시장바닥이라니...'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행여나 기대하셨던 거룩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간냄새 가득한 풍경에 실망마저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나 그전이나 그곳은 사람이 사는,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오가며 저녁마다 음식냄새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예루살렘 구시가지 가까이, 혹은 구시가지 안에 숙소를 잡기를 추천합니다. 구

시가지 안에도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프란치스코회에서 운영하는 숙소, 호텔 등이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거룩한 무덤 성당을 도보로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주님 무덤성당은 4시 반에 문을 여는데, 그 이른 시간에 가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골고타에서, 예수님 빈 무덤 앞에서 조용히 바치는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 깊은 곳에 그 감동이 새겨집니다. 6시 즈음 프란치스코회에서 바치는 창미사(솔렘미사)에 참여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성당에 은은히 울리는 파이프오르간 소리와 함께 수사님, 신부님들의 노래가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룩한무덤성당



예수님 빈무덤

예루살렘 구도시 동쪽으로는 **올리브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꼭대기 주변에는 승천 경당, 주님의 기도 성당이 있고 중턱에 눈물 성당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겐세마니 대성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한 흔적을 가진 성지들이지요. 이곳 또한 자동차를 타고 순례하기 어렵습니다. 택시를 이용하여 꼭대기에서 내려 걸어 내려오며 순례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특별히 아침시간에 이곳을 방문하면 예루살렘 구도시를 아주 잘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문 동쪽, 무슬림 구역을 포함하여 올리브 산 너머까지의 지역이 팔레스타인

현지인의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다마스쿠스 문 서쪽은 유대인과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사는 지역이지요. 그렇게 동, 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서쪽의 야포문으로 빠져나오면 바로 앞에 쇼핑몰이 있는데, 다마스쿠스 문 근처에서 본 난전과는 너무도 다른, 유대인들이 지은 반짝거리는 새 건물에 있는 명품 상점과 음식점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밤에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참 멋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예루살렘의 마지막 밤을 보내면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이드 학교에서 예루살렘 구도시 현장수업을 할 때, 가브리엘 바르카이라는 교수님이 지도를 하셨는데 수업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납니다. “40여년을 예루살렘 땅을 파고 연구를 하였는데도 내게 예루살렘은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유명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마지막이 떠올랐습니다. 발리앙의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살라흐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뒤돌아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는 “모든 것이지”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지요.

이 짧은 글로 예루살렘 소개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상의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평생 한번쯤은 지상의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타 언덕, 묻히시고 부활하신 빈무덤이 있는 거룩한 무덤성당을 꼭 순례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비록 어두운 코로나라는 질병의 그늘 아래 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올 그 밝은 날, 예루살렘에서 반갑게 인사드리기를 희망해봅니다.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 - 베르나노스, 브레송, 파스칼, 베유, 그리고 ‘은총과 구원의 현상학’

최대한 신부_ 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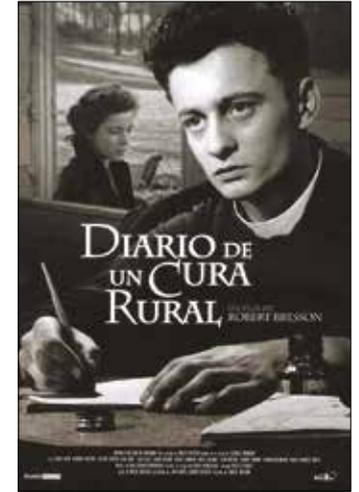
베르나노스를 향해 가는 길

이제 가을에서 겨울까지의 제법 긴 기간 동안 프랑스 작가 조르주 베르나노스 (1888-1948)의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 (정영란 옮김, 민음사, 2009)를 찬찬히 다루어보려 합니다. 살면서 여러 번 손에 쥐게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는 그런 책들에 속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끼고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영향을 받은 ‘인생의 책’ 중 하나입니다. 여러 회에 걸쳐 이 책의 주제와 내용 뿐 아니라 현대 가톨릭시즘과 영성과의 관련성, 우리 시대에 던지는 의미 등에 대해 다양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20세기 가톨릭 문학과 사상사에 조르주 베르나노스는 각별한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여러 소설이나 평론들도 흥미롭고 가치 있지만, 무엇보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는 그를 대표하는 걸작입니다. 이 위대한 작품이 지닌 문학적 가치 뿐 아니라 영적·신학적 의미 역시 큼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

한 가톨릭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스위스 출신의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1905-1988)가 베르나노스의 작품에 나타난 영성과 신학에 대해 『삶 안에 있는 교회 (Gelebte Kirche: Bernanos)』라는 제목의 대작을 쓴 것은 그 하나의 방증입니다. 최근에는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 (2013) 83항에서 베르나노스의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 인상적으로 사용된 표현 하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83항은 ‘내적인 무기력’과 희망을 잃은 표지로서의 나태함과 슬픔의 정서에 빠져드는 무질서를 지적하며, 이것이 눈앞의 일에만 빠져드는 ‘회색의 실용주의’를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본문을 인용해 봅니다.

“무덤의 심리학이 전개되어 그리스도인들을 서서히 박물관의 미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실과 교회와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껴, 희망이 없는 막연한 슬픔에 잠기는 유혹을 끊임없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Journal d'un curé de campagne, 1951
Drama, 1h55min
Director: Robert Bresson
Writers: Georges Bernanos(novel), Robert Bresson(scenario)
Stars: Claude Laydu, Nicole Ladmiral, Jean Riveyre

슬픔은 ‘악마의 가장 귀중한 영약’인 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빛을 비추고 생명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나, 결국 그들은 어둠과 내적인 무기력만 낳고 서서히 사도다운 열정을 소진시켜 버리는 것들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복음화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여기서 교황이 베르나노스에게 빌려온 표현이 ‘악마의 가장 귀중한 영약’입니다. 베르나노스가 얼마나 신앙인 내면의 보이지 않는 드라마와 투쟁을 절실하게 통찰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참조: 정영란, 『『복음의 기쁨』과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 신학전망 2017년 여름, 154-195).

로베르 브레송의 영화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

베르나노스는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51년에 불가능하다고 보였던 이 작품의 영화화 작업을 해냈고, 여러 면에서 베르나노스와 비견될 깊은 예술세계를 여러 심오한 영화들을 통해 보여준 프랑스의 영화감독 로베르 브레송 (1901-1999)를 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영화가 이 소설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영화 역시 영화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고전이자 유례없이 예리하게 종교적 정신의 본질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자체로 깊은 명상과 성찰을 이끌어주는 작품이며, 관객들 각자에게 자신의 내면의 풍경을 살펴보도록 영감을 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소설을 본 사람에게는 소

설의 힘을 다시금 음미하게 하고, 아직 소설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제 소설의 세계 속으로 발을 디딜 마음을 갖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인격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60년대 모더니즘 영화를 상징하는 프랑스 누벨바그의 정신적 후원자였던 유명한 영화 평론가 앙드레 바쟁 (1918-1948)은 이 영화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가 이 영화에 대해 붙인 헌사인 ‘은총과 구원의 현상학’은 이 영화만이 아니라 베르나노스의 원작 소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앙드레 바쟁은 이 영화가 지성을 넘어 심장에 닿는다고 말합니다. 바쟁의 평에 의하면, 브레송은 이 영화에서 심리를 묘사하고 설명함으로써가 아니라 외면적인 사건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으로써 내면적인 풍경을 드러내려는 인내로운 시도를 합니다. 영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며, 원작이 담은 살아있는 신학과 인간학을 영화적으로 형상화하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영화라는 매체가 ‘구원과 은총의 현상학’에 도달하는 것은 가히 기적적이라 하겠습니다. (바쟁이 1951년에 쓴 브레송에 대한 전설적인 평문 「“시골사제의 일기”와 로베르 브레송의 문체론」은 그의 영화론을 모

은 저서『영화란 무엇인가』(박상규 옮김, 사문난적, 2013)에 담겨있습니다.)

파스칼과 시몬 베유

베르나노스의 원작 소설이든, 브레송의 영화이든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를 ‘은총과 구원의 현상학’으로서 체험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들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준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이자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 (1623-1662)의 『팡세』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파스칼이 말하는 “숨은 신”(Deus absconditus)의 개념에 공감해야 합니다. 파스칼은 은총과 구원이 우리의 삶 안에 실재함에도, 은총과 구원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하느님께서 ‘숨은 신’이라는 역설적 방식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파스칼에 의하면 믿고자하는 이는 이에 충분한 빛을 볼 것이며, 믿지 않으려 하는 이 역시 그에 충분한 어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빛을 보는가 어둠을 보는 가를 결정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파스칼의 통찰 속에, 현상학, 곧 ‘나타남’을 ‘나타남’으로 바라보는 인식과 실존의 방식이 선취되

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소설을 본다면 작품의 화자인 젊은 신부의 다음과 같은 일기 내용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투에서 대번에 어떤 낚새, 영혼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낚새를 느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를 설복시키거나 진정시키는데 필요한 적절한 말을 그때 찾아냈을 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런 말을 모른다. 대신 인간에게서 나오는 진실한 고통은 우선 하느님께 속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나는 겸손하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 안고 내 것으로 삼아 사랑해보려 애쓴다.”(123쪽)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인 앙브리꾸르 본당의 젊은 신부는 위암으로 죽어가면서, 친구에게 “모든 것은 은총 일세”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독자는 비로소 소설 내내 전개된 신부의 내적 고뇌와 만연한 악과의 분투, 애덕을 향한 일상의 투쟁이 은총을 은총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한 준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실존을 은총의 사건이 일어나는 빈터로 놓아두는 것이야말로 ‘은총과 구원의 현상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인내와 기다림과 비움이 은총을 만나는 사건, 그것이 베르나노스가 생각하는

구원일 것입니다. 베르나노스와 브레송과 파스칼을 함께 생각하면서 문득,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실천가였던 시몬 베유 (1909-1943)가 떠오릅니다. 그녀 역시 파스칼과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2차 대전이 종전 되었을 때 출간된 그녀의 유작이자 단상 모음인 『중력과 은총』(윤진 옮김, 이제이북스, 2008)은 그녀의 철저하고도 초월적인 종교적 성찰과 명상을 전해줍니다. 종교적, 내면적 밀도가 놀라울 정도로 깊은 책이지만, 프랑스 사회에 일관 독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주었고, ‘현대의 팡세’라는 평을 얻었습니다. 베유는 파스칼의 ‘사랑의 질서’에 대한 명상을 이어받아 중력과 은총의 상반된 질서를 예리하게 파고 듭니다. 그녀의 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은 그 솔한 부조리와 모순과 아이러니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은총을 향하는 사랑의 모험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는 베르나노스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



티나씨의 티비보기

유튜브 생중계, 해봤더니 (2)

김은영 크리스티나_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언론홍보 담당

디지털 단말기의 화면은 오래전부터 ‘창’에 비유되어 왔다. 이는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생중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튜브 생중계는 대면 행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열린 소통의 창이다. 그런데 나 자신이 생중계를 보거나 제작에 참여하다 보면, 그 ‘창’이 때로는 ‘벽’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직장 안에서 했던 유튜브 생중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깨닫게 했다. 2021년 파스카 성삼일에 주교회의의 직장 공동체는 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을 성당에서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생중계로 진행하면서, 신부님들이 꼭대기층 성당에서 사무실층으로 내려오면 직원들이 나와서 영성체하도록 안내했다. 여기에는 생중계를 보면 영성체의 시점을 알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런데 구내식당이나 청소실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서 약간 늦게 영상을 보기 시작한 직원들이 복도에 나왔을 때는 사제들이 행렬의 끝을 확인하고 물러간 뒤였다. 영상에 늦게 접속할수록 실제 상황과 영상 송출의 시간차

가 더 벌어진 탓이었다. 몇 달 뒤에 있었던 다른 미사 생중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부님들이 조금 더 기다리기도 했지만, 같은 건물에서 한술밥을 먹으면서도 서로의 사정을 돌보기는 쉽지 않음을 절감한 사건이었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학술행사에서는 배석자들의 말과 행동에 자기 검열의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한다. 시쳇말로 ‘박제’라고 불리는, 대면 행사였다면 너그럽게 넘어갔을 실수나 돌발적인 언행이 녹화영상에 영원히 기록되는 현상 때문이다.

어느 토론회의 발제자들은 예전에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었을 과감한 주장도 지금은 조심스럽다는 난처한 심정을 생중계 중에 토로하기도 했다. 내가 알기로는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걱정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중계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본다면 발언의 맥락이 오해되지 않을지 염려하던 분위기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박제를 두려워해야 할 이들은 출연자들만이다. 온라인 청중의 날 선 댓글들도 박제되어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킨다. 생중계되는 행사의 메시지에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출연자나 발제자들을 두고 인신 공격을 한다든지, 실시간 댓글 참여자들이 서로 말싸움을 벌이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온라인 공간에 영구히 각인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소통의 벽에 대해 가장 고민할 때는 생중계의 조회수와 시청 지속 시간을 확인할 때다. 전문 방송보다 완성도가 부족한 작은 화면을 장시간 시청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나 또한 솔한 생중계의 시청자로서 주중에는 일상 업무를 먼저 처리하느라 중계장은 접속만 해놓고 숨겨둔 적이 많았다. 실제로 유튜브가 채널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분석표를 보면, 시청자들이 영상의 처음 10% 정도만을 보고 접속을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인내심에 한계가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 요즈음의 온라인 학술행사 주최 기관들은 발제자별로 녹화본을 따로 출력해서 여러 편의 영상을 제공하곤 한다. 더 많은 관심자들이 학술활동의 산물을 공유하도록 중개하는 일이나 나도 이 애프터서비스를 기꺼이 맡지만, 한편으로는 생중계로 말미암아 늘어난 노

동량이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 의심도 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유튜브 생중계의 스타프들은 막힌 벽을 허물고 창을 내려 애를 쓴다. 생중계 주소를 SNS에 공유하고, 학술행사 자료집을 시청자들이 미리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알린다. 행사팀에는 실시간 댓글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 누군가 전담해야 한다며 신신당부하고, 업로드가 완료된 영상들은 검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주제어를 달고 재생목록을 묶는다. 진인사대천명, 우리의 노력이 적재적소에 가 닿게 할 다음 손길을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끝> 🍷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티나씨의 티비보기'를 집필해 주신 김은영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성미술 이야기

고통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신앙의 열정

정용모 신부, 서울대학교 성미술 담당

가을 단풍이 한창이다. 산의 나무들뿐 아니라 거리의 가로수도 단풍으로 물들어 있다. 삭막한 도시에서 제때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자연은 이처럼 고단한 삶을 가꾸는 사람들에게 세월의 흐름을 알려주면서 위로를 준다.

어느새 가을, 엇그제 맞은 것 같은 올 해도 몇 달 남지 않았다. 2021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와 가경자 최양업(토마스) 신부가 태어난 지 2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유네스코에서는 올해의 세계인물로 김대건 신부를 정하여 그분의 고귀한 삶과 신앙을 본받도록 하였다. 교회에서도 다음 달까지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여러 행사를 진행하여 신앙의 귀감인 그분을 새로운 차원에서 만나도록 도와준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종로성당에는 특별한 형상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상이 있다. 김대건 신부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분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그는 1821년 충남 당진군 솔뫼에서 태어났다. 15세에 마카오로 유학하여 1845년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다. 귀국 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사목하다가 1846년 체포되어 서울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1984년 성인품에 올랐으며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가 되었다.

종로성당은 설립 40주년이 되던 해인 1995년에 김대건 신부상을 야외에 건립했다. 수도자이면서 조각가인 김미영(뷔타) 수녀가 혼신의 힘을 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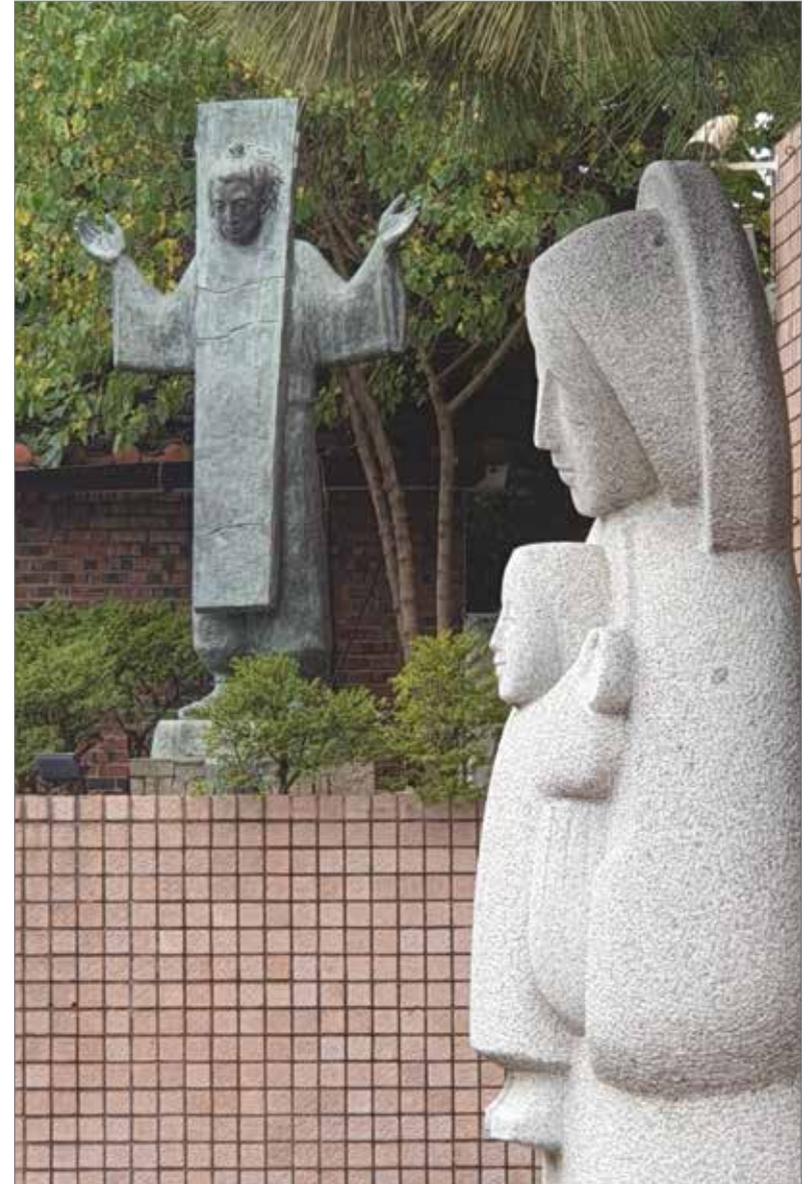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상, 김미영(1945-), 1995년, 청동, 종로성당 주차장

여 진흙으로 형상을 빚은 다음에 청동 작품을 완성했다. 이 상에는 김대건 신부가 체포되어 포도청에 갇혀있는 모습을 담았다. 그는 목에 긴 칼을 쓰고 있지만, 일어서서 양팔을 벌리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전해준다. 종로성당 근처에는 조선시대의 포도청이 있었고, 그곳에 김대건 신부가 갇혀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상으로 제작되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죽기까지 의연하게 신앙을 증거하였다.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끝까지 사제로서 충실하게 살았던 사목 열정을 잘 보여준다. 신자들은 이 성상 앞에 머물며 기도하면서 김대건 신부의 굳은 신앙을 묵상하고 자신의 신앙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고자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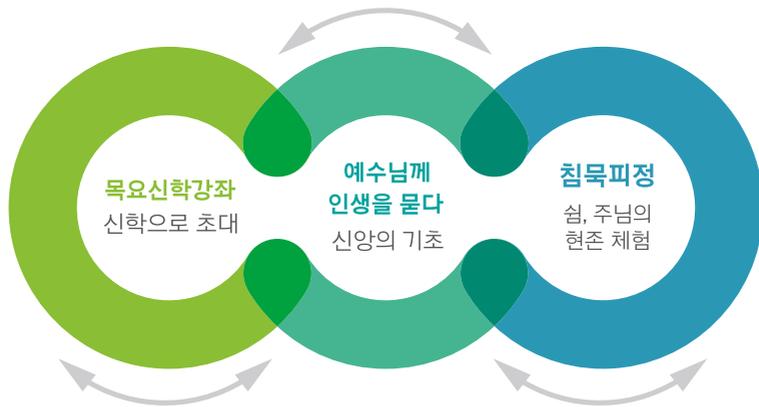
원래 김대건 신부상은 길에서 종로성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 신자 뿐 아니라 길을 오가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목에 긴 칼을 쓴 신부님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의견도 신자들 사이에서 나오곤 하였다. 그래서 후에 이 성상은 성당의 입구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의 높은 곳으로 이동하였고, 그 자리에는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한 성모자상이 자리 잡았다. 단아한 성모상은 최봉자(레지나)수녀의 작품이다. 두 작품은 외부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한다. 🍃



성모자상과 김대건 신부상

2021 한국 CLC 하반기 교육

‘하느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구분	과정명	지역	기간	장소
신학강좌(6주)	목요신학강좌	서울	10/21~11/25(목)	한국 CLC (온라인 병행)
영성강좌(6주)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수원	10/5~11/9(화)	수원교구청
		대구	10/13~11/17(수)	대구교구청
침묵피정(2박3일)	평신도를 위한 침묵피정	시흥	11/5~11/7(금~일)	성바로 피정의 집
기도훈련(6주)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	서울	9/7~10/19(화)	한국 CLC (온라인)

* 각 강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CLC 홈페이지(www.kclc.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좌 일정은 교구지침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명동밥집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
(1 고린 10장 17절)



나는 나누입니다.

슬퍼하는 친구를 위해 눈물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기쁜 소식을,
이웃을 위해 시간을,

그리고 배고픈 이들과
따스한 한 끼를 나누입니다.

나누는 마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 함께 해주세요.

명동밥집 후원하기

■ 신청방법 : 홈페이지 mdbj.or.kr 전화 02-774-3488

후원계좌

■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자활사업 후원 : 우리은행 1005-304-138483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밥집 봉사자 신청 : 명동밥집 홈페이지 참조(mdbj.or.kr)



Chi-Rho

: a Christian monogram and symbol formed from the first two letters X and P of the Greek word for Christ (called also Christogram)

First Known Use of Chi-Rho
1868, in the meaning defined above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